

가천대학교

국내 최초 반도체 대학

배터리 특성화 대학원

하와이 캠퍼스

스타트업칼리지 '코코네스쿨'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가천대 길병원

국내 최초 연구중심병원

국내 최초 닥터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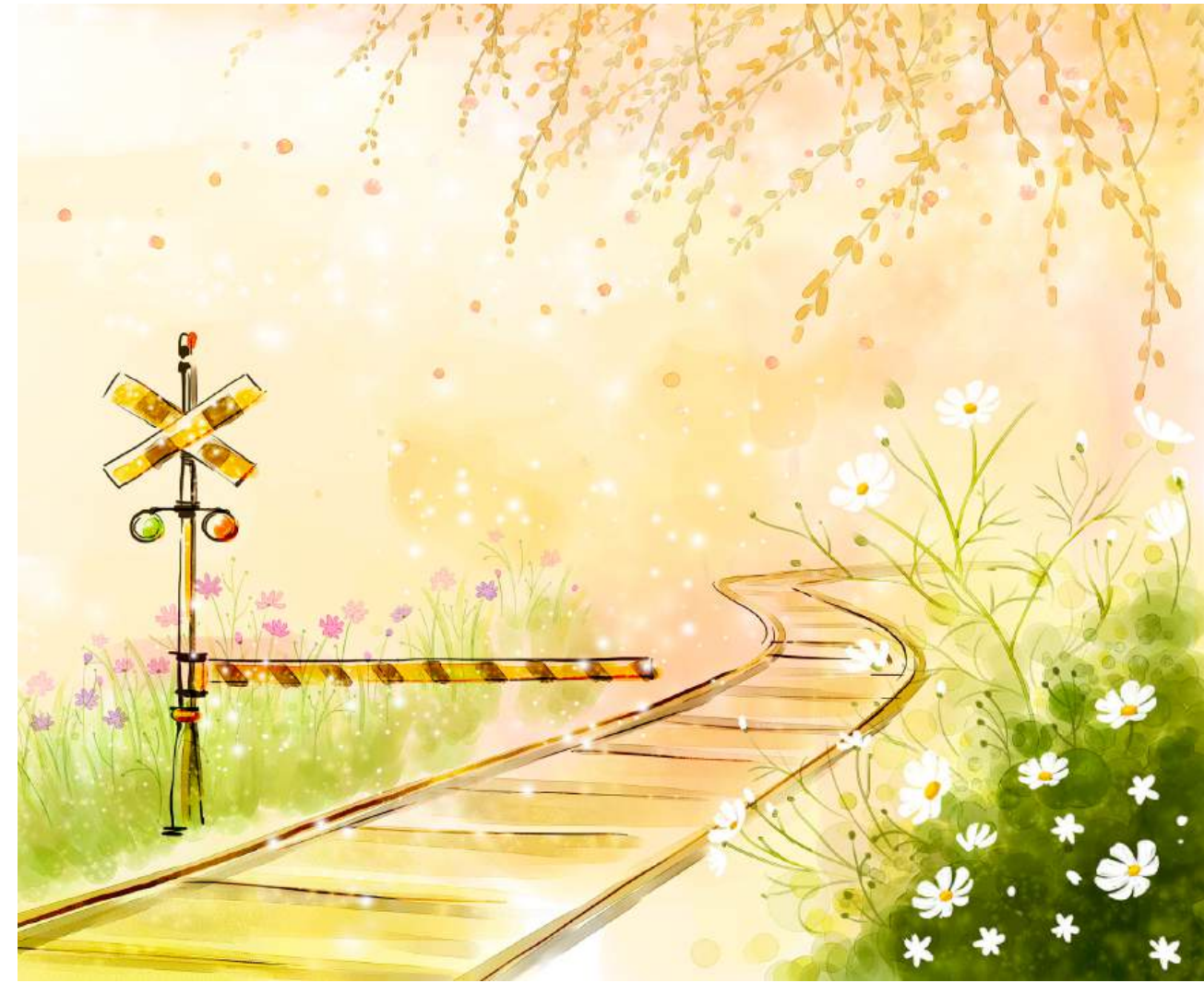
국내 최초 중성자 암치료기

사립대 최초 국가지정 암센터

경인 최초 CAR-T 암치료센터



길병원 닥터헬기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 소식지 차문화

2026 Vol. 163

가을

茶文化



가을에는 명승지에서 차를 마셔보자

조선시대 차인 석루 이경진 (1567-1644)



가을 차발의 찻꽃

긴 불별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름 햇볕이 강해야 곡식이 익고 과일이 영그는 법이다. 강한 햇볕은 그런 점에서 고마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이다. 푸르던 잎들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은 독서와 함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절이다. 차인들은 차를 싸 들고, 명산을 유람하면서 삶을 관조했다. 석루 이경전 다시(茶詩) ‘김자징을 양양으로 보내며’를 살펴보자.

민정을 살피기보다 산사 찾아 좋아하니 / 곳곳의 명승지를 먼저 오르겠지.
『다경』과 약서(藥書)를 다니는 곳마다 지니고 / 나막신과 가마는 아픈 몸으로도 타겠지.
현산(峴山)의 경치는 가을이면 비단 같고 / 낙산의 누대에는 달빛이 등잔 같으리.
맑은 날 동남쪽으로 잘 본다면 / 한 점 푸른 섬 울릉도가 보이리라.

김시헌(金時獻- 자는 자징)은 산수 유람을 즐기는 인물이다. 이런 벗이 강원도 양양의 수령으로 부임하니, 곳곳의 명승지를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란 내용이다. 유람에도 꼭 챙기는 것이 『다경』이라고 하니 김자징이 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짐작이 가는 시다. 이경전의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중집(仲集), 호는 석루(石樓). 아버지가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이다. 그가 9살에 지었다는 견괘(犬吠) 또한 걸작이다.

첫째 개가 짖으니, 둘째 개가 짖고 셋째 개 또한 따라 짖네.
사람 때문인가? 범 때문인가? 바람 소리 때문인가? 아이가 말하네
“산 위에 뜬 달이 마치 촛불 같은데, 뜰에서 우는 오동나무 때문이다.”
이미 그의 천재성이 9살에 나타났다. 이 시는 『석루유고』에 실려 있고, 석루유고에는 13살에 지었다고 되어 있다. 🍵

[표지 이야기]
릴케의 시에 '가을은 위대했다'라는 문구가 있다. 불별더위와 폭우로 대변되는 여름은 우리들에게 때론 힘들게도 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릴케는 '가을은 위대하다'라고 했을 것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참으로 위대한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한국차문화협회(사)규방다례보존회 소식지
발행·편집인 최소연 | 편집장 고만송
발행처 (사)한국차문화협회 | (사)규방다례보존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T. 02) 719-7816, 7817 | F. 02) 719-78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인천무형유산 전수교육관 110호
T. 032)468-3595 | F. 032)461-2350
홈페이지 www.koreatea.or.kr | http://gyubangdarye.co.kr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gyubangdarye@naver.com



茶半香初 • 내 안의 향기를 찾아

- 004 이사장 인사말 | 차인 여러분, 흠어져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모이면 위대한 일도 만들어 냅니다
- 006 특집 1 | 제67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및 하계연수회
- 024 특집 2 | 제46회 차의날 기념 및 제37회 전국차인큰잔치 차음식경연대회

茶香共感 • 차의 맛, 차의 멋

- 042 여행이 있는 풍경 | 무형유산 규방다례가 있는 인천여행
- 046 차문화 기행 | 러시아 차문화교류 기행
- 048 홍차이야기 | 함께여서 행복했던 홍차 수업이야기
- 050 건강한 삶 | 거북목 증후군
- 052 회원 글발 | 차(茶), 차(茶), 차(茶)
- 066 협회 소식 | 정기이사회 개최 외

茶情茶感 • 찾임이 맺어준 인연

- 073 지부사랑방
강원지부 / 경남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충북지부
- 093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
- 096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액 내역 및 우송료 명단

차인 여러분, 흠어져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모이면 위대한 일도 만들어 냅니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동안 자연의 흐름을 알려주는 24절기에서 열네 번째 절기인 처서가 지났습니다. ‘멈출 처’와 ‘더위 서’ 더위가 멈춘다는 말처럼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가을이 오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여름의 열기가 남아 있지만, 곧 추석 전에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추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의 기운은 더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남은 더위를 잘 견디어 내고 오는 가을에는 차인 여러분 모두 기쁨의 추수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인천의 차인 이규보는 『동국이상국후집』 제1권에 신곡행(新穀行) - 햅쌀의 노래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날알 한 알 한 알을 어찌 가볍게 여기겠는가(一粒一粒安可輕) 사람의 생사와 부귀가 여기에 달렸구나(繫人生死與富貧) 내가 농부를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것은(我敬農夫如敬佛) 부처도 굶주린 사람을 구하기는 어려우니(佛猶難活已飢人) 농사의 풍요가 이 몸에게까지 이르는구나(東作餘膏及此身)” 이규보는 작은 쌀 한 알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보았고 여름의 열기를 견디며 생명을 길러낸 농부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거두게 되는 모든 열매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을 기억하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지난여름 더위와 빗속에서도 많은 차인 여러분이 참석하여 무사히 하계연수회를 마쳤습니다. 제67회 하계연수회를 마치고 동계연수회를 생각하면서 협회의 연중 일정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67회째나 연

수회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어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차곡차곡 쌓여 한국 차문화의 역사가 되어 가는 우리의 모임이 참으로 귀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유적을 보면서 당시의 문화에 감동하고, 선조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구나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현재 우리의 노력이 있었기에 차문화가 자신들에게 남겨졌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 여깁니다. 현재 우리의 차문화를 계승하는 모든 일은 역사가 되어 후손들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연수회를 통해 새로운 배움을 얻고 열정을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로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으니, 함께 라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故 인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협회를 만들고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모이는 자리를 만드신 것은 분분히 흠어져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함께 모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 차문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만, 모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고 이제 우리는 K-tea 세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차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으니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새로운 차문화의 부흥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차문화 르네상스의 주역이 되어 봅시다.

이제 올해는 닷 달이 남았습니다. 찻잎들이 뜨거운 물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풀어내어 향기로운 차가 되듯 차인으로서의 깊이를 한 단계 더하는 성장의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모든 차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가을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제67회 인성차문화 예절지도사 수료식 및 하계연수회 성료

2026년 경기 용인시
KG써닝리더십센터에서
1박 2일 진행

협회는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KG써닝 리더십센터에서 전국 27개 지부와 내외 귀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이번 하계연수회에서 '우리의 차문화가 세계 속에 꽃필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차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임원 및 회원께 감사함을 전했다.



2026. 08. 22.

1일차

개회식 및 특강과 다담 시간 가져



최소연 이사장 개회사

불멸더위와 장마가 지나간 자리엔 어느덧 매미소리
가 자지러지고, 녹음을 자랑하던 나뭇잎도 가을
단풍에게 자리를 양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2일 오전 10시가 되면서부터 전국에서 회원들이
써닝리더십센터에 속속 도착했다. 12시부터는 회
원들의 점수와 숙소 입실 등을 완료하면서 본격적
인 연수회 일정에 돌입했다.



오후 1시 30분 최소연 이사장과 협회 임원, 국내외
차인들이 참석하면서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지난 5월 7일에는 고 이귀례 명
예이사장님께서 1981년부터 추진하셨던 ‘차(茶)의
날’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
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 기념
행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행사가 열리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K-Food’의 식재료와
조리법에 세계인들이 관심을 두듯이 ‘K-Tea’, 한
국 차문화의 진가를 발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
리의 다례는 소박한 품위와 편안한 맛을 바탕으로
정신적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 차를 마시는 행
위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태도에서 출발
하며 손님을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예술
입니다. 저는 지난 6월의 ‘차인큰잔치 차음식 경연
대회’에 출품된 100여 점에 가까운 차음식과 다화



2026. 08. 22

를 보면서, 우리에게 매우 큰 문화예술적 역량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자산을 발견하고 전통을 계승하여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새로운 차문화의 르네상스를 열어 봅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에게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것지만 그럴수록 자연의 순리, 인간다움과 마음의 균형, 조화와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차인은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아우르는 사람이니 이미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나 오늘 새롭게 취득하시는 분들 모두 'K-Tea'의 주역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2026. 08. 22



2026. 08. 22



2026. 08. 22

특강1 고미숙 고전평론가



특강 1에서는 고미숙 고전평론가의 '동의보감으로 보는 삶의 비전'이란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고미숙 평론가는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은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했다. 그와 함께 동의보감의 저자 허균이라는 거인의 무릎을 타고 자연철학자가 말하는 세계로 떠나보자 말했다.

고미숙 강사는 뛰어난 인문학적 사고력으로 기존의 텍스트를 재해석해 나가면서 현대인의 생활습관은 물론 우울증과 공허감에 곤잘 사로잡히는 심리상태와 우리 시대의 지식배치 등에 관해서 신선한 시각으로 회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의학과 인문학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의 치유본능을 이끌어



2026. 08. 22



2026. 08. 22



2026. 08. 22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사는 지적하면서 “몸과 삶과 생각”이 하나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을 삶이 곧 운명이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라 그 탄생 자체부터 삶의 방식과 직결되어 있다. 또한, 모두가 양생의 지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사는 강조하면서 “내 안의 치유본능을 깨워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자.”라고 주장했다. <하계연수회 교재 참조>

1부 특강이 끝난 후에는 인천지부가 준비한 찾자리가 펼쳐졌다. 최지원 지부장의 진두지휘 아래에 펼쳐진 찾자리는 회원 및 임원들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이었다. 협회 임원들은 찾자리에서 최소연 이사장과 함께 차 전반에 대한 다담 시간을 가졌다.



특강2 박희준 한국발효차연구소 소장

이 자리에는 특강에 참석했던 고미숙 고전평론가와 박희준 한국발효차연구소장과 담소를 나눴다.

2부 특강에서는 박희준 한국발효차연구소 소장의 ‘한국 차정신의 멋과 풍류’로 진행되었다. 박 소장은 최치원(崔致遠)은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 풍류는 우리나라의 현묘한 도이며,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이질적으로 대응하여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여 조화로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원형적 바탕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 바탕이 최치원은 풍류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불교문화의 전래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가야 백제 신라의 차문화사

에 신화적이거나 구전적 설화적 요소를 가지고 불교와 차가 함께 등장한다.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부터 차가 있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선덕여왕과 자장율사 그리고 통도사사적기에 나오는 차를 이어주는 우리 차문화사의 유입시기의 한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이고, 5교 9산의 성립과 함께 신라와 고려시대 고승들이 보여주는 선차문화는 우리 차문화가 돈오점수(頓悟漸修)적 수행 과정을 이행한 뒤 마치 간화선(看話禪)의 단계로 접어들어가고 있던 시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계연수회 교재 참조>

2일차

차홍익 교수의 특강과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진행



특강3 차홍익 가천대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지부 지회장 임명장 수여식



남원지회장 정다교 전문사범, 정읍지회장 이영순 전문사범



차홍익 가천대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2일차에는 차홍익 가천대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의 '이비인후과 질환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특강 3이 있었다. 차홍익 교수는 귀질환과 구내염, 급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어지럼증, 안면마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례별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하여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이명,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보청기에 대해서 설명했다. 나이가 들수록 보청기를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가족간 대화의 자신감, 회의중 불안하지 않다. 통화를 잘 할 수 있다. 등 보청기의 장점에 대해서 말했다. 이밖에도 코질환으로 코중격 만곡증, 비후성 비염, 부비동염, 알레르기 비염,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등 다채로운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 설명했다. 🌸

<하계연수회 교재 참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에는
지부 임명장과 함께 준사범, 지도사범에게
자격증 수여식을 가졌다.
수료식에는 많은 회원이
축하해 주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3급 자격증 수여식

심의위원 최소연, 박광옥

2026년 8월 23일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전북지부 남원지 회장 정다교 전문사범, 정읍지회장 이영순 전문사범이 받았다.

이어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증 16명이 수여했다. 지도사범 개근상에는 대구경북제1지부 이미숙, 전북지부 이수현 사범이, 화목상에는 모녀(경남) : 안선희(전문사범), 임하늘(졸업생), 모녀(서울제2) : 윤라영(전문사범), 박신아(졸업생), 조카/자매(서울제2) : 박광옥(부회장) / 박강희, 박채정(졸업생) 등에게 상장과 상품 3인 다기가 주어졌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수여자 9명, 홍차티마스터 7명이 자격증을 받으며, 수료식을 마쳤다.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선서를 하고 있는 전북지부 이수현 지도사범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개근상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증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증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화목상



홍차티마스터



이석예 이사와 차영민 부회장의 도움으로 홍차티마스터 과정을 마침

하계연수회 성료 및 동계연수회를 기대하며...

차생활을 생활화하는 차인이 되길 바랍니다

폐회식에서 최소연 이사장은 “1박 2일동안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5g 이상 차를 마시기를 권합니다. 미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차를 항상 음용하고, 나를 나추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납시다. 오늘 만남이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했던 1박 2일 동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폐회사로 2026년 하계연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



임원진 단체사진



지부 지원금 지급



대구경북제1지부



강원지부



서울제1지부



경남지부



서울제2지부



아산지부



전북지부



인천지부



충북지부



전남지부

“지난 2026년 5월 7일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1981년부터 추진하셨던 ‘차(茶)의 날’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차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 차문화가 세계속에 꽃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니다.”

제46회 차의날 기념 및 제37회 전국차인 큰잔치 차음식경연대회 성료

(사)규방다례보존회와
(사)한국차문화협회 주최하고
주관한 전국 차인들의 큰잔치
성공적으로 개최

협회는 2026년 6월 27일(토) 제46회 차의날 기념 및 제37회 전국차인큰잔치 차음식경연대회를 인천광역시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했다. (사)규방다례보존회와 (사)한국차문화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한 이번 차인큰잔치 차음식경연대회는 인천시민과 일반인 등 4,000여 명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뤘다.



2026. 06. 27.



2026. 06. 27.



2026. 06. 27.



2026. 06. 27.

“차음식경연대회에는 전국에서 출품된 100여 점이 전시되어 회원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관광공사, 가천대학교, 가천대 길병원, 가천문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보성군, 하동군이 후원하고, 한국제다, 햇차원이 협찬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차음식과 다화 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차음식경연대회 심사는 김천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김소림 (사)행동하는 여성연대 대표, 최미리 가천대학교 수석부총장, 이선희 가천대 간호대학장 등이 심사를 맡아주었다. 차음식경연대회에는 예전보다 많은 100여 점이 출품되어 회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 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인 김천주



2026. 06. 27.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부회장) 현대례



2026. 06. 27.

최진숙 지부장, 정순영 이사 헌화



2026. 06. 27.

최소연 이사장 인사말



2026. 06. 27.

이건호 창립회원 선언문 낭독

이사장은 “매년 참석할 때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놀랍니다. 정성껏 만든 작품을 볼 때마다 신기하고 그 정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품한 작품 모두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특히 녹차를 이용한 차음식이 K-푸드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맛과 상품성 등에 초점을 맞춰 심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오후 1시부터는 기념식이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김종형 (능화)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총연합회 이사장, 신재경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 김종규 한국 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정순훈 한복세계화재단 이



사장, 이태훈 가천대길병원 의료원장, 최미리 가천대 수석 부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협회 강정자 부회장의 지휘 아래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과 신고 차인에 대한 묵념, 박경숙 협회 부회장의 선고차인에 대한 헌다례가 진행되었다. 헌다례가 끝난 후에는 이진호 한국차문화협회 창립회원이 차의 날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경연대회는 한껏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헌화에는 서울제1지부장 최진숙 지부장과 서울제2지부 정순영 이사가 올렸다. 최소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전국 차인큰잔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차(茶)’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차(茶)의 날은 1981년 5월 25일, 진주에서 전국의 차인들이 모인 가운데 처음으로 선언하여 지금까지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 고(故) 인설(仁設)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도 ‘차(茶)’의 날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에 앞장섰습니다. 실로 반세기 만에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염원하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라며 차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염원했던 것으로 차인들에겐 가장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제 ‘차(茶)’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으니 지난 46년간 우리 차인들이 기념해 왔던 민간 차원의 행사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매년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2027년 ‘차(茶)’의 날 행사는 더욱 성대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전통 차(茶)를 K-푸드와 함께 국가의 전략자산으로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이자 산

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더욱 갈고 닦아야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끝으로 “차음식경연대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차의 다양한 활용성과 창의성, 상품성은 물론 누구나 가정에서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들로 가득합니다. 작품 하나하나에는 차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정성으로 작품을 완성해 주신 모든 차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맛있는 차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제다 체험과 녹차, 가루차, 황차 등 다양한 찻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함께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인사말을 마쳤다. ☺



제37회 전국 차인큰잔치 명예이사장 이길여 총장 축하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신록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차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제37회 전국 차인 큰잔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함께해 주신 차인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계는 'K-Everything' 시대라고 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화장품과 라면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

의 깊은 정신과 예(禮)가 담긴, '한국 차문화'는 아직 그 가치만큼,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차문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입니다. 저는 언니이신 고(故) 이귀례 이사장님과 함께 우리 차문화 재건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느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차는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곁에 있던 한국 사람이 머뭇거리다가, "송농!"이라고 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우리 차문화의 맥이, 거의 끊길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오히려, 저와 이귀례 이사장님에게 "우리 차문화를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는 더 큰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신념 하나로 이귀례 이사장님은 한국차문화협회를 세우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우리 차문화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뜻을 함께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깨지기 쉬운 다구를 들고 비무장지대와 산골마을, 외딴 섬까지 차 향기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셨습니다. 또한, 중국, 스리랑카, 인도, 미국, 독일 등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한국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품격 있는 차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선조들이 부처님께 차를 올리던 '헌다'의 전통이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우리 차문화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차문화협회와 여기 계신 차인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차인 여러분! 한국의 차문화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또 다른, 절제의 미학과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문화도 'K-컬처'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축제가 우리 차의 향기를 더 멀리 퍼뜨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최소연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차 향기처럼 은은한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6년 6월 신록의 향기 가득한 날에

가천길재단 회장
가천대학교 총장

의학박사 이길여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신재경

올해로 서른일곱 번째를 맞는 전국 차인 큰잔치는 우리 차 문화의 맥을 이어 오며 국내 최고 권위의 차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우리 인천에서 매년 뜻깊은 만남의 행사가 이어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차는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과 배려의 문화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차를 활용한 음식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발전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이는 차 음식 경연과 전시는 차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민과 함께 그 멋과 맛을 널리 알리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한국 고유의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예를 익히고 정신을 가다듬는 우리의 차 문화가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김천주

우리나라 차문화 발전의 선구자이며 차문화의 어머니로 추앙받고 있는 인설 이귀례 사임당님은 우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35대 사임당으로 본회와 함께한 시간도 적지 않아 차의 날 행사가 다가올 때마다 그리워집니다. 인설 이귀례 사임당님이 규방다례를 무형유산으로까지 등재시키는데 큰 노력을 하였던 것이 차문화와 예절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차(茶)는 찻잎을 우려내고 마시는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 줍니다. 서양차나 음료를 마실 때는 허겁지겁 마시기도 하지만 웬지 차(茶)를 마실 때는 찻잔을 두손으로 받쳐 들고 다소곳하게 예의를 갖추고 마셔야 할 것만 같습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가 예절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인거 같습니다. 오늘, 전국의 차인(茶人)들이 큰잔치를 열어 차로 만든 음식도 선보이고 규방다례, 선비다례 등 차와 함께 예절 시연도 하고 제다체험(녹차만들기), 다식 만들기, 녹차솜사탕, 떡메체험, 전통부채만들기, 생활다례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진행하여 차(茶)를 다양한 이벤트로 일반 시민들도 친근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의 한복을 차려입고, 차(茶)를 마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이번 제37회 전국 차인(茶人) 큰잔치가 전통 차(茶)뿐만 아니라 우리 예절과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제46회 차의 날을 기념하는 “제37회 전국 차인큰잔치와 차음식 경연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통 차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님과 규방다례보존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차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례(茶禮)’는 ‘차를 마시는 법’보다 ‘차를 통해 서로를 공경하는 예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차를 내리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예를 갖추며 배려하는 것이 다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를 우리는 과정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례는 옛 선비들, 승려들의 수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차는 자연이 준 물과 잎, 계절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한국의 차문화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에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 사람을 배려하는 예절,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담겨 있듯이, 인천교육이 책은 물론, 친구의 마음, 내 주변의 자연, 심지어 AI를 읽고, 걷고, 더 나은 세상을 써 가자는 읽고 쓰고 걷는 교육 역시 차 문화처럼, 사람과 자연, 그리고 AI와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함입니다.

AI 시대를 만들어 낸 것도 인간입니다. 이 역설의 매력이 차 한잔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관광공사 사장
유지상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선조들의 삶과 함께 이어져 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차 한 잔에 담긴 예(禮)와 배려, 절제와 성찰의 정신은 공동체의 조화와 품격 있는 삶을 이끌어 온 전통문화의 정수라 할 것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차문화는 단순한 기호문화를 넘어 건강과 웰빙, 마음의 여유와 치유를 제공하는 가치 있는 생활문화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 차인큰잔치는 우리 전통 차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차와 전통음식이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는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차문화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가 차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화합하는 교류의 장이 되고, 나아가 우리 전통 차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



100여 점이 출품된 차음식경연대회 커팅식



차음식경연대회 전시장 커팅식이 1시 30분에 진행됐다. 차음식경연대회 커팅식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해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최미리 가천대 수석 부총장, 이태훈 가천대길병원 의료원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김종형(능화)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총연합회 이사장, 김소림 행동하는 여성연대 대표 등 내외 귀빈 15명이 참석했다.

차음식경연대회 대회장에는 100여 점의 차음식이 전시되어 회원 및 일반 관람객으로 종일 붐볐다. 관람객들 중에는 외국인들도 다수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들은 “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이 있는지 새삼 놀랐다. 앞으로 K-푸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전시장 옆으로는 경남지부(황차), 전남지부(가루차), 충북지부(녹차), 아산지부(녹차), 전북지부(가루차), 대구경북제1지부(황차) 찻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 차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이밖에도 서울제1지부의 다식, 인천지부의 생활다례 시연, 강원지부의 부채, 제다체험과 의로지원 팀이 행사를 빛내주었다. 100여 점이 출품된 차음식경연대회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경남지부 고은희 사범의 ‘추억의 차와 강정’이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또한 최우수상 5명에는 서울제1지부 최정희 이사, 충북지부 김선경 사범, 대구경북제1지부 김영희 사범, 경남지부 이서영 사범, 서울제1지부 최진숙 지부장이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고은희 사범은 ‘지부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회원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차음식을 만들면서 지부 회원들과 많이 행복했습니다.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요. 뿐만 아니라 큰 상을 받고 보니 차음식에 대한 열정이 새롭게 느껴집니다.’라고 말했다. 차음식경연대회가 진행되는 한쪽 야외 무대에서는 협회 회원들의 생활다례, 가루차행다례, 선비다례, 규방다례가 시연되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서울제1지부 생활다례 시연



경남지부 가루차행다례 시연



대학원 23기 선비다례 시연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시연

차음식경연대회 수상자 및 수상작

차음식경연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경남지부 고은희 전문사범이 수상했다.

전국차음식경연대회에서 '추억의 차와 강정'이라는 작품으로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고은희 전문사범은 어린 시절 운동회에서 느꼈던 설렘과 웃음, 기쁨,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을 차와 강정으로 표현했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제1지부 김영희, 서울제1지부 최진숙, 최정희, 충북지부 김선경, 경남지부 이서

영 등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우수상에는 인천지부 안명자, 전남지부 이승희, 류석진, 서울제1지부 박은주 사범이 수상했다. 🍵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작품



최우수 수상자들



최우수 수상자들



최우수상 가천문화재단 이사장상
김영희 대구경북제1지부



최우수상 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상
최진숙 서울제1지부



최우수상 인천시의회의장상 / 김선경 충북지부



최우수상 인천시장상 / 최정희 서울제1지부



최우수상 협회 이사장상 / 이서영 경남지부



우수상 가천대학교 총장상 / 안명자 아산지부



우수상 보성군수상 / 이승희 전남지부



우수상 하동군수상 / 류석진 전남지부



우수상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상
박은주 서울제1지부



다화 특별상
가천의대 길병원장상 / 신행자 인천지부



다화 특별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상 / 이석예 서울제1지부



특별상_가천의대 길병원장상 / 손혜란 전북지부



특별상_가천의대 길병원장상 / 신연서 서울제1지부



특별상_인천관광공사 사장상 / 윤라영 서울제2지부



특별상_한국제다상 / 김경자 전남지부



특별상_한국제다상 / 미숙경 인천지부



특별상_한국제다상 / 서난경 전남지부



장려상_협회 이사장상 / 문채남 서울제2지부



장려상_협회 이사장상 / 박복순 강원지부



장려상_협회 이사장상 / 박은숙 전북지부



장려상_협회 이사장상 / 이봉련 서울제1지부



장려상_협회 이사장상 / 이기분 서울제1지부

차음식경연대회 수상을 축하합니다.

어린 시절 운동회를 떠올리며 만들었습니다

대상수상자
경남지부 고은희 전문사범



제37회 전국차인큰잔치 차음식경연대회에서 ‘추억의 차와 강정’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작품은 어린 시절 운동회에서 느꼈던 설렘과 웃음, 기쁨,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을 차와 강정으로 표현한 작은 시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추억처럼 누구나 한 번쯤 간직하고 있을 소중한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작품임에도 진심을 헤아려 어여뻐 여기시고 큰상을 주신 협회와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상은 저에게 자랑이기보다 더 배우고 성장하라는 격려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차 한 잔과 음식 한 조각도 마음을 담아 많은 분께 따뜻한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지부장님과 선배 사범님께 감사사를 전합니다. ㉸

추억의 차와 강정

재료>

볶음깨 40g, 가루차 3g, 천년초가루 10g, 치자가루 10g, 자일로스설탕 5큰술, 올리고당 4큰술, 소금 1작은술

만들기>

1. 중불에서 달궈진 팬에 설탕과 올리고당을 넣고 약불에서 계속 저어가면서 설탕을 녹여준다.
2.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천천히 올리고당 색이 나게 된다.
3. 이때 볶음깨를 넣어준다. 펑펑하다면 올리고당을 추가하면서 만든다.
4. 볶음깨에 가루차를 넣고 색을 내기 위해 천년초가루 또는 치자가루를 넣어 섞어준다.
5. 넓적한 그릇에 종이 호일을 깔아주고 만든 깨강정을 넣는다.
6. 골고루 평평하게 펴준다.
7. 냉장고에 넣어 굳혀서 먹기 좋게 자른다.
8. 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예쁘게 세팅해서 담아낸다.

홍차 고유의 맛과 향을 살렸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
충북지부 김선경 전문사범



충북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선경입니다. 매년 열리는 차인큰잔치의 차음식경연대회는 저에게 늘 기대되고 설레는 행사로 다양한 차 음식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제46회 차의 날’ 기념 ‘제37회 차음식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은 저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출품작의 주제는 “차와 함께하는 파인애플 머핀과 파인애플 케이크 - 파인애플꽃으로 피어나다”로 정하였습니다. 홍차의 고유한 맛과 향을 살려주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달콤한 다식을 만들고

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머핀과 케이크를 굽고, 파인애플을 성형하여 모양을 잡아 구워 건조한 후, 만들어 놓은 머핀과 케이크에 파인애플을 장식하여 화려하고 멋진 홍차 찻자리가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잘 우려진 차와 함께 내놓은 다식은 차의 멋과 맛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차음식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노력하는 차인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

고민 속에 해답이 있었다

최우수상 수상자
서울제1지부 최정희 이사

우리 지부장님의 열정으로 인해 등 떠밀리다시피 하게 된 올해의 차음식. 20여 년의 차음식 제출로

인한 레시피 고갈과 준비 시간의 부족이 가장 큰 난제로 시작된 차음식이었다. 한 달 내내 뭐로 하나? 로 시작된 고민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냉장고에서 발견된 작년쯤 만들어둔 참외 고추장 발진. ‘오호라!~ 비빔밥으로 하자. 근데 차음식인데 비빔밥?’ 이걸 또 한 번의 난제였다. 하지만 나에게 행운은 있었나 보다. 제다 실습에 쓰일 찻잎과 우리 집 뒷밭에 있는 차나무가 생각나는 순간 나의 머릿속

고민은 해결. 대회 이틀 전부터 장 보고, 만들어보고, 맛보고, 주방은 난리 통으로 변해 버린 끝으로 완성된 차향 가득한 참외 고추장 비빔밥 완성! 제일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찻잎의 떫은맛을 어떻게 없애고, 부드럽게 맛을 내는가였다. 생찻잎을 올리브기름에 넣고 데쳐서 유념하듯 비벼서 부드럽게 하여 간을 하고 무쳐보았더니, 떫은맛이 사라져 여러 야채 속에서도 찻잎 본연의 맛을 뽐내면서도 함께 어우러지는 맛으로 완성되었다. ☺



찻자리에 피어난 정성과 조화, 대상을 향해~

최우수상 수상자
경남지부 이서영 전문사범



차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차음식경연대회를 준비하며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고자 차근차근 정성을 다했습니다. 차와 어울리는 최상의 맛을 고민하던 중, 육포와 가루차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고소한 깊은 맛이 나는 육포를 세심하게 다지고 가루차와 조화롭게 반죽하여 ‘가루차 포를 품다’라는 다식을 완성했습니다. 정성껏 다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담아내는 연출과 상차림이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아이디어

로는 미처 채우지 못했던 공간을 사범님들과 지부장님, 고문님의 조언으로 하나씩 채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은은한 차향이 함께 어우러진 단아한 다식 상차림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응원하고 함께해 주신 경남지부 회원님들의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차음식 출품으로 또 하나의 바람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작품으로 대상에도 기꺼이 도전해 보려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품은 강화도

글 인천지부 원종혜 전문사범

강화도는 인천광역시의 여러 섬 중 가장 크고 한국의 섬 중 제주도, 거제도, 진도 다음으로 4번째로 큰 섬이다. 그런데 우리의 5천년 역사에서 수도가 되었던 적도 있으니 대한민국의 섬 중에서 최고의 섬이 아닐까? 또한 고조선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수많은 역사 유적을 품고 있어 강화를 여행하면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모두 훑어 볼 수 있다.

1. 고조선

고인돌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다. 덮개돌을 받침돌로 괴었다고 해서 고인돌이라고 부르며 한자로는 지석묘(支石墓), 영어로는 dolmen이라고 부른다. 거대한 돌을 인위적으로 옮겨 매장을 하고 무덤을 조성했으므로 계급사회가 생겼다는 증거라고 본다.

전세계 고인돌의 약 50%인 3만개 정도가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어 강화, 고창, 화순의 고인돌 유적이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강화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 유적 옆에 강화 역사 박물관과 강화 자연사 박물관이 함께 있다.



강화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

마니산과 참성단

강화도의 모든 산 중 가장 높은 산(해발 467미터)이다. 산 정상에는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참성단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148권의 기록에는 [꼭대기에 참성단(塹星壇)이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조선 단군(檀君)이 하늘에 제사



마니산 참성단

지내던 석단(石壇)이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 원종 11년(1270), 조선 인조 17년(1639), 숙종 26년(1700)에 수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참성단에서는 1955년부터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7선녀가 성화(聖火)를 채화한다.

2. 고려

고려궁지

고려시대인 1232년(고종 19년)부터 1270년(원종 11년)까지 38년 동안 강화는 고려의 수도였다. 몽골의 사신이 피살되는 사건을 계기로 침략이 시작되자 고려 무신정권은 수도인 개경과 가깝고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공격하기 쉽지 않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였다. 수도인 만큼 천도 후 2년간 궁궐과 관청, 태묘 등이 지어져 수도의 모습을 갖추었다. 후에 몽골과 화의한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하자, 이에 반대한 삼별초가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며 항쟁을 이어갔다.

이 시기 강화도에서 몽골군의 격퇴를 염원하며 15년에 걸쳐 팔만대장경을 판각하였다. 11세기 거란군의 침입을 막고자 80년에 걸쳐 판각한 6천여 권



고려궁지

의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으로 모두 소실되자 다시 8만여 권을 제작하여 강화 선원사에 보관하였으며 1398년(조선 태조 7년) 합천 해인사로 옮겼다. 지금도 옮기려면 2.5톤 트럭 100대 분량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인사로 옮겼는지, 그리고 팔만대장경에는 단 한 글자의 오자도 없다 하니 신앙의 힘, 국난을 극복하려는 민족의 힘이란 위대하다.

3. 조선

전등사

381년(고구려 소수림왕 11년) 창건한 진종사(眞宗寺)에 고려 충렬왕비인 정화공주가 옥등을 시주한 후 전등사(傳燈寺)로 이름이 바뀌었다. 1678년(조선 숙종 4년)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찰로 지정되어 왕실의 보호를 받았다. 절 뒷편에 정족산 사고가 있고 왕실족보인 선원세보 등 왕실문서를 보관하는 선원보각((璿源寶閣),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장사각(藏史閣)이 있으니 조선 후기 국가기록의 핵심시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웅전에 들어가 보면 기둥에 낙서처럼 보이는 것들이 남아 있는데 1866년(고종 3년) 병인양요 당시 참전했던 조선군 병사들이 프랑스군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살아 돌아오기를 빌면서 이름을 적었다 라고도 한다. 양현수 장군이 이끌던 조선군은 정족산성에 의지하여 9월부터 10월에 이르는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었다.

프랑스군은 퇴각하면서 강화도의 여러 성곽과 요새, 강화행궁을 불사르고 행궁 내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5천여 권의 전적(典籍)과 왕실재산인 은괴를 약탈해 갔다. 이 중 조선왕조의례 297권이 145년 만인 2011년에 장기 임대 형식으로 반환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었다. ㉠



전등사 대웅보전과 경내

무형유산 규방다례가 있는 인천여행은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후에는 한국차문화협회 지부가 위치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차로 이어지는 만리다도, 차로 만나고 차로 우정을 나누다

러시아 차문화교류 기행 소감 (7월 20일~8월 6일, 18일간)

萬里茶道·茶和天下

글_서울제1지부 이봉런 전문사범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러시아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차를 매개로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차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한국과 러시아 간 직항 노선이 재개되지 않아 7월 20일 동해항에서 국제여객선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유람선에서는 러시아 어린이에게 한국 전통다례의 기본 예절을 소개하며 작은 차문화 교류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7월 22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사마바르 박물관에서 열린 한·중·러 차문화 교류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전통 다식인 구절판과 함께 한국 전통 선비다례를 시연하였고, 참석자들은 한국 차문화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섬세한 예절에 깊은 감동을 전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다만 참가자의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어서 차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나누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어 7월 23일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인



9,288km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올라 7박 7일 간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긴 이동 시간 동안 객실 승무원과 여러 나라의 승객들과 함께 차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한국 차문화를 소개할 수 있었고, 차 한 잔이 언어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연을 이어온 찻집을 방문하여 차를 매개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여행의 마지막 무렵인 8월 2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Чай как искусство(차, 예술이 되다)』에서 가장 뜻깊은 한·중·러 차문화 교류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는 20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개인 찻잔을 준비해 올 만큼 차를 사랑하는 젊은 차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다예와 중국차는 많이 접해 보았지만 한국 녹차는 처음이라며 맑고 아름다운 탕색과 은은한 향, 부드러운 맛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선비다례는 매우 새롭고 인상적이었다며 직접 체험해 보고 싶다는 관심을 보였고, 앞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 차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정은 혼자 참가한 일정이었기에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한국 차문

화의 가능성과 세계 속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러 직항 노선이 다시 열리고 민간 차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진다면 양국 차인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장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경험은 저에게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갈고 닦아 한국 전통다례와 전통다식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차는 한 잔의 음료가 아니라 문화를 전하는 언어이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앞으로도 '차로 이어지는 만리다도, 차로 만나고 차로 우정을 나누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며 한국 차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



함께여서 행복했던 홍차 수업 이야기

홍차티마스터 전문 과정

글_인천지부 이금숙 이사



2026년 5월! 녹음이 짙어가던 무렵, 홍차티마스터 전문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차와 가까이 한 지도 여러 해가 되었지만 ‘전문 과정’이라는 단어는 정년퇴직 후 무료해질 무렵, 제 삶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인천지부 강희옥 감사님, 최지원 지부장님, 조영아 이사님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의욕이 생겼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7시 30분. 규방다례에서 만나 한국차문화협회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이어지는 수업을 마친 뒤에는 막히는 도로를 능숙하게 운전하며 인천까지 안전하게 서둘 해주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 영종도 댁으로 돌아가시는 일정까지 묵묵히 책임져 주신 최지원 지부장님의 열정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론과 실습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 이석예 이사님. 그리고 선물 보따리 같은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피드백을 전해주신 차영민 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업마다 강의실을 따뜻한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정성스러운 식사와 간식으로 늘 푸근한 마음을 전해주신 서울지부 최진숙 지부장님과 김승빈, 진인순, 유기선, 조효선, 이미선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충남 청양에 있는 온적다원에서 홍차를 만들기 위해 채엽하고, 위조, 유념, 산화, 건조의 과정을 체험한 1박 2일의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직하면서도 직설적인 대표님의 말씀은 깊은 울림을 주었고 야생의 땅속 깊이 곧게 뻗은 뿌리에서 올라온 정직한 차 나무



의 ‘一槍二旗’의 고고한 자태는 지금도 눈앞에 선명합니다. 드디어 3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시험을 앞둔 3주 동안 나만의 차와 Table Setting을 구상하며 많이 고민했습니다. 힘겨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힘든 것이 아니야.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야.” 그 한마디는 저에게 포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번 홍차티마스터 과정은 단순히 홍차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분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으며,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를 통한 예절 교육은 물론, 우리나라 전통차인 녹차를 중심으로 차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가르침과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최소연 이사장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여서 더욱 행복했고, 배울 수 있어 더욱 감사했던 2026년 여름, 이 소중한 인연과 배움을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

홍차티마스터 과정은
단순히 홍차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목, 어깨 만성 통증 부르는 거북목 증후군

고개 숙인 현대인의 고질병



가천대 길병원 척추센터
손 성 교수

“목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기기 자체보다 ‘어떤 자세로, 얼마나 오래 사용하느냐’다. 평소 자신의 머리와 목이 몸통보다 앞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지 자주 확인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

출퇴근길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사무실에서는 온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본다.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를 사용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디지털 기기가 일상이 되면서 현대인의 목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아래로 숙이거나 앞으로 내민 자세로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생활 습관과 함께 흔히 볼 수 있게 된 것이 이른바 ‘거북목 증후군’이다. 거북목은 옆에서 봤을 때 머리와 목이 몸통보다 앞으로 빠져나온 상태를 말한다. 거북이가 목을 앞으로 길게 뻗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북목 자체가 목디스크와 같은 질환은 아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세로 목에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이 지속되면 목과 어깨의 만성 통증을 유발하고 목등뼈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흔히 ‘목디스크’라고 부르는 경추간판 장애로

진료받는 환자도 연간 100만 명 안팎에 이를 정도로 목 건강 문제는 현대인에게 매우 흔하다.

우리 몸의 목등뼈, 즉 목뼈는 모두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적인 성인의 목등뼈를 옆에서 보면 일직선이 아니라 앞으로 완만하게 볼록한 C자형 곡선을 이룬다. 이러한 곡선은 머리의 무게와 외부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목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머리의 위치다. 정상적인 자세에서는 머리의 무게가 목등뼈를 따라 비교적 고르게 전달되지만,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를 앞으로 내밀수록 목뼈와 주변 근육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진다.

특히 머리가 앞으로 빠져나온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려면 목 뒤쪽 근육이 머리를 붙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장해야 한다.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을 한 뒤 목과 어깨가 뻣근하고 묵직하게 느껴지

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거북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고개를 숙이거나 목을 앞으로 내미는 잘못된 자세다. 둘째는 나이가 들면서 목뼈와 추간판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다. 특히 잘못된 자세가 장기간 반복되면 목 주변 근육과 인대뿐 아니라 추간판과 관절에도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져 퇴행성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

거북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소 머리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가 반복되거나 목등뼈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 정상적인 C자형 곡선이 점차 감소할 수 있다. 목이 일자에 가까운 형태로 변하면서 머리가 몸통보다 앞으로 빠져나오는 자세가 굳어지고 목 주변 근육의 피로와 통증도 반복된다. 초기에는 목과 어깨가 뻣근하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정도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하고 잘 돌아가지 않거나,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한 뒤 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어깨와 등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정면을 바라볼 때 목 뒤쪽 근육을 더욱 많이 사용해야 해서 오래 앉아 있을수록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거북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목디스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좋지 않은 자세와 과도한 기계적 부담이 장기간 지속되면 목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추간판과 주변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추간판이 돌출되거나 퇴행성 변화로 신경이 압박되면 단순한 목 통증을 넘어 어깨와 팔, 손까지 뻗치는 통증이나 저림,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팔이나 손의 근력이 떨어지거나 손의 섬세한 움직

임이 어려워지고 보행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신경 압박 정도가 심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거북목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다. 단순히 턱을 뒤로 당기거나 목만 꼿꼿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자연스럽게 펴고 척추 전체를 곧게 세워 머리가 몸통 위에 놓이도록 해야 한다. 옆에서 봤을 때 귀와 어깨가 가능한 한 같은 수직선에 위치하도록 자세를 잡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은 지나치게 아래에 두지 말고 가능한 한 눈높이에 가깝게 올려 사용한다. 컴퓨터 모니터 역시 화면을 보기 위해 목을 앞으로 내밀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높이와 거리를 조절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는 독서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바른 자세를 취하더라도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과 어깨를 가볍게 움직이고 스트레칭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려운 시대다. 결국 목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기기 자체보다 ‘어떤 자세로, 얼마나 오래 사용하느냐’다. 평소 자신의 머리와 목이 몸통보다 앞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지 자주 확인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 목과 어깨 통증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거북목으로 여기고 방치하기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목등뼈의 퇴행을 늦추고 건강한 목을 오래 유지하는 첫걸음이다. ❶

茶 茶 茶

회원 글밭

회원들의 다채로운 차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 기쁨, 아쉬움, 연민, 사랑, 외로움 등이 묻어 있다. 그 속에는 보석 같은 우리의 일상이 숨어 있다.

이번호에는 각 지부의 회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차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글밭은 차인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 옥고를 보내주세요.

<편집자 주>

인도 여성 사회적기업가 연수단과 함께한 우리 차문화 체험

글_서울제1지부 신연서 이사



춘천 봄내 여성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인도 여성 사회적기업가 역량강화 연수단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통 다도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인도 사회적경제 및 여성경제역량 강화 분야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고위급 및 중간급 관리자들이 참가하였으며, 강의와 기관 라운딩, 태극기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을 마친 후 우리 차문화와 예절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찻자리는 백련을 띄운 연지와 백자 달항아리, 들꽃으로 꾸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과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 준비하였습니다. 전통 한복을 갖춰 입고 차를 대접하며, 찻잔을 잡는 법과 녹차를 세 번에

나누어 마시는 의미, 다식을 먹을 때의 예절, 그리고 전통 다식에 담긴 정성과 이야기를 함께 전했습니다.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문화의 정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차를 음미하며 우리 전통 예절과 다도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체험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할 만큼 큰 호응을 보내주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우리 전통문화의 품격과 아름다움에 깊이 감동하였다는 소감을 전해 주셨으며, 따뜻한 환대와 정성 어린 다도 체험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차 한 잔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 다도와 예절 교육을 통해 우리 차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



보이차 인삼정과 꽃과 삼색 차 큐브다식과 함께한 여정

정성과 기다림으로 빚어낸 결실



글_서울제1지부 박은주 지도사범

코로나19로 일찍 퇴근하여 바깥 활동이 제한되던 답답한 시기, 문득 평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차음식 만들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시작한 작업이었지만 차음식을 빚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속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둘 다식을 만들어나갔고,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후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불교사업단에서 진행되는 사찰음식을 배우고, 사찰음식전수관의 특강에도 빠짐없이 참가하며 저만의 취미를 한 걸음 더 깊이 확장해 나갔습니다.

‘비록 오늘은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자리에 무사히 참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뿌듯하다.’ 스스로를 다독였던 그 순간, 작년에 마음속으로 간절히 다짐했던 ‘우수상’ 호명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면 지친 일상 속 작은 위로로 시작했던 차음식이 이제는 제 삶에 큰 활력과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번 우수상은 저 혼자 노력이라기보

다, 마음 줄이며 걱정할 때마다 묵묵히 응원해 준 주변의 모든 분과 늘 아낌없이 이끌어 주신 협회 이사님들과 지부장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값진 우수상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큰 도전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이번에 얻은 소중한 경험과 영감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최우수상’을 목표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차와 차음식의 깊은 맛과 멋을 널리 전하며, 늘 정성을 다하는 차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



한국차문화협회에서 너무 너무 많이 배우고 익혔다

글_서울제1지부 조효선 지도사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한국차문화협회와 맺은 인연으로 2026년 COEX 국제차문화대전에서 전통 행다법인 생활다례 시연을 선보일 수 있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차들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우리의 차문화를 공유하는 자리는 신입인 저에게는 자부심과 더불어 책임감도 느끼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차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닌 마음의 정갈함과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마음으로 절부터 시작해서 찻잔을 예열하고 상대방의 잔을 데우기 위하여 손님 잔의 예열 물을 나중에 버리는 것과 예를 올리고 나서 찻잔을 들어 올리는 것까지 모든 순간마다 정성과 마음을 담는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세 차례 다례체험 클래스가 30분도 안 돼서 딱 차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다례체험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차음식 경연대회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다식들을 보면서 우리의 맛과 멋을 느끼고 차음식도 한편의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앞으로도 배울 게 정말 많지만 선배 사범들 이사님들 부회장님들 이사장님을 보면서 봉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한국차문화를 잘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

종강식에서는 정말 많은 선배 사범님들과 이사님들께서 와 주셔서 많은 감동과 감사함을 갖는 귀한 시간이었다. 돌아가면서 인사하면서 모두의 마음에 차에 대한 깊은 열정, 사람 간의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행복했다.

차 수업 시간에 차에 대한 역사도 배우고 차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자수 다건도 만들고 꽃꽂이도 배우고 동기들과 끈끈한 다담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한 학기가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



찾잔에 담긴 성장의 시간

다화는 장식에 머무르지 않는다

글_서울제1지부 김승빈 전문사범



지난 7월 11일, 한국차문화협회 서울제1지부 중강실에서 36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약 40분간 다화(茶花)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차영민 부회장과 김가영 부회장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함께 한 자리였다. 특강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혼자 준비를 시작했다. 어떤 식물을 보여드릴지, 그 식물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지 생각하며 화재(花材)와 화기를 고르고 내용을 정리했다. 단순히 꽃의 이름이나 형태를 설명하기보다는, 식물을 천천히 바라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위해 선택한 화재가 페니쿰(Panicum)



과 하이페리쿰(Hypericum)이었다. 페니쿰은 벼과(Poaceae)에 속하는 식물이다. 가느다란 줄기와 섬세하게 흩어진 모습은 작은 움직임에도 부드럽게 흔들리며 주변의 공기까지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

나는 강의에서 페니쿰을 이렇게 소개했다.

“페니쿰은 선을 만드는 식물이 아닙니다. 공간을 만드는 소재입니다.”

꽃과 꽃 사이의 여백에 페니쿰을 두면 비어 있던 공간에 생명이 생긴다. 움직이지 않던 공간에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차를 우리는 동안 피어오르는 김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새 공간으로 펼쳐나가는 차향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차와 꽃은 어쩌면 닮아 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꽃과 꽃 사이의 여백, 찾잔과 사람 사이의 거리, 그리고 잠시 말이 멈추는 순간. 비어 있는 공간이 있기에 우리는 향을 느끼고 작은 움직임을 발견한다. 페니쿰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공간과 바람을 느끼게 해주는 식물이었다. 페니쿰이 공간과 움직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면, 하이페리쿰은 시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이페리쿰은 꽃보다 열매를 감상하는 소재이다. 처음에는 연두색이었던 열매가 노랑, 주황, 분홍, 빨강을 거쳐 짙은 자주색으로 익어간다. 강의에서는 보호, 희망, 풍요, 결실이라는 꽃말도 함께 소개했다. 나는 이 작은 열매에서 ‘완성’보다 ‘가능성’을 떠올렸다. 아직 익지 않은 열매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풍요를 이미 품고 있다. 그래서 하이페리쿰은 찾자리에서도 의미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함께 자리한 이에게 앞으로의 좋은 결실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페니쿰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고, 하이페리쿰은 보이는 결실이다.

하나는 움직임을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차가 있다. 우리는 한 잔의 차를 마시지만, 어쩌면 찾잔 안에 담긴 것만을 마시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찾잎이 자라는 계절과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시간, 찾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공간에 천천히 번지는 향,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까지.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찾자리를 만든다. 그 곁에 놓이

는 다화 역시 단순한 장식에 머물지 않는다. 한 줄기의 풀과 작은 열매를 바라보며 지금 계절이 어디쯤 와 있는지 발견하고, 자연이 어떤 모습으로 다음 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껴볼 수 있다. 이번 특강을 준비하는 며칠 동안은 혼자였다. 어떤 식물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식물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그 느낌을 전할 수 있을지 하나씩 준비했다.

그러나 특강이 시작되자 혼자 준비했던 시간은 36명이 함께 식물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페니쿰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하이페리쿰의 작은 열매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선생님들의 표정과 웃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호응을 보며 나 역시 즐거웠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식물이 주는 기쁨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는 점이다. 식물을 자세히 바라보는 데에는 거창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가느다란 풀이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다워 잠시 바라보고, 아직 익지 않은 작은 열매에서 다가올 계절을 상상하는 것. 그 작은 발견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 있다. ☕



색에 담긴 철학 오방색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과정

글_서울제2지부 류소영 이사



불벌더위와 열대야로 밤낮없이 지쳐있는 요즘 시원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 해매는 날이 많았습니다.

부회장님의 오방색 관련 원고를 주시며 읽어보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 보자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이 같이 생겼습니다.

다른 이사님과 선생님들 곁에서 글을 함께 읽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람마다 느끼는 것과 받아들이는 관점이 여러 가지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깊게 느낀 점은 전통문화에 대한 진정성과 수정하며 배우는 시간이 되며 전통문화의 깊이가 정말 깊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교정과 정리의 시간을 넘어, 우리 색채가 가진 의미와 깊이를 재발견하는 배움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오방색이라는 다소 어렵고 관념적일 수 있는 주제를 독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하나와 단어 선택 하나까지 끊임없이 검토하고 다듬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수정 속에서 단 한 순간도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원고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모습은, 이 책이 단순한 서적이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의 결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없이 글을 다듬으며 마침내 하나의 완성된 책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 깊은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



스무 살, 차 한 잔의 여유를 품고

인설 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필기·실기시험을 마치고

글_서울제2지부 박신아 지도사범



스무 살이 되어 인설 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필기·실기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시험 자체보다도 어린 시절 엄마와 형제들과 함께 생활다례를 배우던 시간이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오 남매가 함께 차를 배웠습니다. 매년 차문화경연대회에 참석해 한복을 입고 다례를 익혔고, 그 과정에서 최우수상도 여러 번 수상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고, 예쁜 한복을 입고, 차를 내리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스무 살이 된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은 제게 우리 전통문화와 예절,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가르쳐준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제게 차를 가르쳐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해주시고, 부족할 때는 다시 알려주시며, 제가 차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저도 차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스무 살이 되어 자격시험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박광옥 부회장님과 깊은 인연도 제게는 참 소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차와

의 인연이 스무 살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순간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새로운 공부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공부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쉬게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엄마와 오 남매가 함께 배운 차문화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저도 미국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느림의 시간, 정성의 차

하동 야생차밭에서 만난 차문화

글_경남지부 정재윤 전문사범



『어른의 품위』를 읽으며 한동안 마음에 머문 문장이 있었다. “느리게, 정성스럽게, 수작업으로 만든다”라는 말이었다. 예전의 나는 이러한 태도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고집이나 조금은 촌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빠르고 편리한 것이 좋은 것이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의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오히려 느림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차나무를 차광 재배하여 곱게 갈아 만든 가루차,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 쓴 편지, 사람이 직접 꺾어 만들어 조금씩 모양이 다른 젓가락처럼 사람의 손길이



오래 머문 것들이 귀하게 느껴졌다. 완벽하게 똑 같지 않아도 그 안에는 만든 사람의 시간과 마음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하동의 차밭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차나무와 자연이 만들어내는 풍경이었다. 하동의 야생차는 인공적으로 통제된 환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차가 아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이 만들어 낸 자연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사람과 함께 살아왔다. 차나무는 인간의 시간에 맞춰 서둘러 자라지 않는다. 계절을 기다리고 비와 햇빛을 받아들이며 자기만의 속도로 새순을 내민다.

올해 곡우가 지나고 한발제다에서 직접 제다 실습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은 더욱 분명해졌다. 찻잎을 채취하고, 덪고, 비비고, 식히고, 다시 덪는 과정에는 손의 감각과 집중력이 필요했다. 찻잎의 상태를 살피고 그에 따라 불의 세기와 시간을 조절해야 했다. 기계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찻잎과 끊임 없이 대화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실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해보니 제다는 상당히 섬세한 작업이



었다. 같은 찻잎이라도 그날 날씨와 잎의 상태, 덪는 시간과 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결국 좋은 차는 단순히 좋은 재료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읽는 사람의 감각과 오랜 경험, 그리고 정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리산 형제봉을 조망할 수 있는 청정한 산간의 부춘다원과 칠불암 골짜기의 신선풍으로 자라는 붓당골다원을 둘러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차밭의 풍경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박하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 소박함 속에 오랜 시간이 축적되어 있었다. 한 그루의 차나무가 자라고, 새순이 돋고, 그것을 사람이 기다렸다가 손으로 따고, 다시 차로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 들어 있었다.

차는 삶의 방식에 잠시 멈춤을 요구한다.

물을 끓이고, 다구를 준비하고, 찻잎을 덜어내고, 물을 붓고,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리는 과정은 효율만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필요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 차문화의 가치가 생겨난다.

하동 차밭 체험은 나에게 차문화가 단순한 음료 문

화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차문화가 지닌 느림과 정성의 가치는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차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빨리하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오히려 잠시 멈추어 자연을 바라보고, 사람의 손길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한다.

느림은 뒤쳐지는 것이 아니었다.

느림은 더 깊이 바라보는 것이었고,

정성은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이었으며,

기다림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이었다.

하동의 차밭에서 만난 차나무는 말없이 자신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차나무를 바라보며 다시 배웠다. 좋은 차는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시간이 정성스럽게 만나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좋은 삶도 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금 느리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기다릴 줄 알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동의 차밭에서 느낀 차문화의 품격이며, 느림이 선물한 삶의 지혜였다. ☯



차 한 잔에 담긴 예절과 마음

신명여고 다례체험 수업

글_인천지부 마숙경 전문사범



2026년 7월 14일, 신명여자고등학교에서는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 차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는 다례체험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명여고는 매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 학생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와 같은 다례체험 수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 더욱 뜻깊은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여고는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예절실을 마련해 주신 학교로, 예절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오래도록 이어가고 있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된 이번 다례체험



수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교의 교육 철학과 전통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은 차에 대한 기본 이해를 시작으로 다구의 명칭과 쓰임, 그리고 차를 우리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물의 온도와 우림의 시간, 찻잔을 드는 손끝의 움직임 하나에도 정성과 공경의 마음이 담겨야 함을 배우며, 차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닌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매개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다례체험이 단순한 전통문화 교육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인성 함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명여고의 다례체험 수업은 전통과 교육이 어우러진 소중한 배움의 장입니다.

앞으로도 이 뜻깊은 전통이 계속 이어져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과 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축제 속에서 더 빛났던 차인(茶人)들의 지극한 정성과 열정

글_인천지부 72기 허재현 사범



지난 6월 27일, 인천 상상공물 웹브홀에서 '제37회 전국 차인큰잔치'와 '차음식 경연대회'가 열렸다. 비록 나는 회원으로 안내를 하며 작품을 지키는 봉사자로 있었지만 덕분에 작품들을 참고삼아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년에 출품할 작품을 스케치하고 메모도 할 수 있었다.

마침 올해 5월에 '차의 날'이 첫 법정기념일로 승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던 터라, 이번 축제를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설레고 기대가 컸다.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의 큰 행사라 그런지,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차고 뜻깊은 분위기가 가득했다.

규방다례와 선비다례의 시연을 보면서 정돈된 몸짓 하나하나에 깃든 정갈한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었다. 시연을 펼치는 차인들의 진지한 몰입을 바라보며, 나 역시 차를 대하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경건하게 바로잡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을 올곧게 지켜내려는 묵묵한 사명감을 엿볼 수 있었다. 앞서 만난 차인의 이야기처럼,

밤을 새워가며 이 길을 완주해 내는 이들의 지극한 노력이 있기에 우리의 소중한 다도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차 한 잔에 담아내는 배려와 존중의 정신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전시장을 가득 채웠던 그 정성과 열정을 마음 깊이 새기며, 걸만 화려한 축제보다 이 길을 지켜가는 분들의 노력이 더 따뜻하게 조명받는 차문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



차(茶) 생활과 산행은 나의 삶의 나침반!

‘겸손과 인내’를 가르쳐준 속리산 100회 산행을 마치며

글_충북지부 김동례 사범

2013년 8월 마지막 방학인 17일! 용기와 설렘으로 속리산을 올랐다. 그 후 13년이란 시간 동안 다양한 감정으로 산을 올라 오늘에 이르렀다. 돌아보니 그냥 산이 좋아 오른 시간이 아련히 떠오른다. 산은 언제나 엄마의 품처럼 편안하게 나를 맞아주었고, 다시 산을 오르도록 나를 불렀다. 늘 산은 그 자리에서 나를 격려해 주고 다시 힘을 주었다. 99회 속리산을 오르면서 스스로 놀랐다. “1번 더 오르면 100회가 되네.” 목표를 세운 것도 아닌데, ‘100회’가 되니 만감이 교차하였다. 속리산의 품은 매우 크고 산세도 기



이하여 명산이라고 할 수 있다. 관음봉, 묘봉, 형제봉 등 많은 봉우리가 있지만, 가장 높은 정상인 천왕봉(1,058m)과 경관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많이 오르는 문장대(1,054m)가 대표적이다. 100회를 앞두고 주봉인 천왕봉에서 능선을 타고 문장대까지 종주하고 싶었다. 종주한다는 생각에 늘 차와 함께 오른 산행에서 보이차를 넉넉히 우려 보온병에 담고, 물도 충분히 준비하였다. ‘홀로 마시는 차는 신(독철왕신, 獨啜曰神)’이라. 그렇다. 고요한 숲속에서 홀로 마시니 무념으로 번뇌도 끊은 선의 경지에 이른 느낌이었다. 자연은 차의 맑은 정신과 통한다. 그래서 홀로 오르는 긴 산행에서 차는 언제나 나의 소중한 동반자였다. 그래서 산행 준비에 가장 먼저 챙기는 것 또한 다기이다. 차는 늘 나에게 몸과 마음의 정신적 지주이며 최고의 피로해소제다. 차를 알게 된 시간은 13년의 산행 시간보다 훨씬 더 긴 30년이 되어간다. 이제 차는 나와 가족의 일상에서 소중한 비타민이다. ☕



어린이와 어머니가 함께하는 차예절 수업

글_충북지부 허윤숙 전문사범

진천군 덕산읍에 있는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작고 아담한 시골 학교에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작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받는 유치원에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차 예절 수업을 하였다. 두 분의 강사 선생님 도움으로 긴장감을 풀고 준비한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고 처음 접하는 차 수업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이론은 짧게 했고, 차 우리는 체험은 길게 하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예절이 있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좋은 시간이었다. 유아들도 낯선 다구 친구들을 직접 잡아보기도 하고 다구 쓰임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는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의젓했다. 예를 갖춘 다음 아이들은 차를 우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어머니들은 살짝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흐뭇한 표정을 하기도 하였다. 정성껏 우려낸 차를 어머니께 드리는 아이들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났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차를 마시고 미숫가루 다식을 맛보면서 아이들은 어머니께 감사함을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차예절 수업은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소곳하게 앉아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차 우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엽고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



인성차문화예절 2급과 3급 홍차티마스터 배출

규방다례 심의 최소연, 박광옥 심사위원. 생활다례 이림, 박경숙, 김태임 심사위원

협회는 지난 7월 25일 협회 교육장에서 최소연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와 박광옥 무형유산 규방다례 전승교육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홍차티마스터 필기와 심의를 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 회원은 필기시험을 마친 후 오후부터는 생활다례와 선비다례, 규방다례 심의를 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심의에 앞서 “그동안 연습한 대로, 긴장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다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틈틈이 집에서 연습하면 행다가 참으로 쉽고 보기에 좋습니다. 오늘 심의를 본 후에도 집에서 혹은 지부에서 열심히 갖고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회원과 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생활다례와 선비다례는 이림 전북지부장(부회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부회장), 김태임

아산지부장이 심의를 봤다. 3인의 심사위원들은 행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규방다례는 최소연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와 박광옥 전승교육사가 심의를 봤다.

홍차티마스터 심의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 심의를 마친 후에는 홍차티마스터 심의를 했다. 심의에는 최소연 이사장과 박광옥 부회장이 심의했다. 이 자리에는 차영민, 강정자 부회장도 함께 홍차 시음을 했다. 홍차티마스터는 지난 5월 홍차티마스터 전문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장장 2개월 동안 준비했다.



홍차티마스터



심의에 참석한 협회 임원진

협회에서 2개월 동안 홍차티마스터 수업을 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 특히 열성적으로 지도해 주신 이석에 서울제1지부 이사의 도움이 컸다.

또한 차영민 부회장의 지도와 편달이 있어 7명의 홍차티마스터를 배출하게 되었다.



심사위원



인성차문화예절 2급



인성차문화예절 3급



2026년 6월 정기이사회 개최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협회 발전 방향 논의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9일 오전 11시 협회 교육장에서 6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성원 보고와 이사장님 말씀, 전호 이사회 회의록 낭독 후 안건 상정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최소연 이사장은 “바쁜 와중에 많은 회원님이 참석해 주어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중요한 안건들이 많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민달래 팀장은 안건 상정으로 제4안이 올라왔다. 제1안 제37회 전국 차인큰잔치 계획(건), 제2안 7월 자격검정 계획(건), 제3안 제67회 하계연수회 계획(건), 제4안 제74기 지도사범 교육계획(건)이 상정되었다.

상정된 제1안은 2026년 6월 27일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개최하기로 정하고 회원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다짐했다. 제2안 7월 자격검정은 7월

4일 1급 필기시험, 7월 25일 2급과 3급 필기와 실기 심의를 하기로 했다. 제3안은 하계연수회 개최 장소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씨닝리더십센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강사 3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마지막 안건으로는 제74기 지도사범 교육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기이사회가 끝난 후에는 최소연 이사장님의 뜨개질 특강이 있었다. 회원 모두가 연꽃 만들기를 통해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8월 교육위원회 개최

2026년 하계연수회 등 각종 현안 토의

지난 8월 13일 협회 교육장에서 8월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교육위원회는 최소연 이사장, 차영민, 김가영, 강정자, 이림, 박광옥, 박숙희, 박경숙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26년 하계연수회 참석 현황을 확인하고,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토론했다. 이어서 각종 현안에 관한 토의가 2시간 동안 심도 있게 다루었다. 특히 지부장의 역할과 지회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과 함께, 회원 중심의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서 지도사범 교육을 위한 동영상 촬영 문제를 비롯하여 무형유산 대축제, 인설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 개최장소 건, 전국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전북지부) 건, 임원 보수교육 건, 규방다례 정기전송 시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밖에도 협회의 발전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 등

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김가영 부회장의 점심 대접으로 ‘고기싸롱’에서 뜻다 한 의견을 나누며 화기에애한 교육위원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부산지부 조정미 지부장이 협회에 활옷을 기증하여 활옷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고유의 활옷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옷으로, 앞으로 협회는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전시하자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활옷 기증을 한 부산지부 조정미 지부장에게 협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했다.



원형이정으로 읽는 한옥, 전시회 관람

협회 최소연 이사장과 차영민, 강정자, 박광옥 부회장 참석

이동춘 작가의 최근 사진전 《원형이정으로 읽는, 한옥》은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 22에서 열렸다. 사진은 한옥·종택·서원·제례 문화를 30년간 기록한 작품 37점을 선보였다.

우리 협회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차영민 부회장, 강정자 부회장, 박광옥 부회장은 지난 6월 17일 강남구 스페이스 22에서 열린 ‘원형이정으로 읽는, 한옥’ 전시장을 찾았다.

이동춘 작가는 한복포럼으로 인연을 맺은 사진작가로 우리 협회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진작가이다.

《원형이정으로 읽는, 한옥》은 한옥을 단순히 오래된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방식과 공동체의 질서가 쌓인 공간으로 해석했다.

전시 제목의 원형이정은 《주역》 건괘의 첫 구절에서 가져온 개념으로, 시작·성장·결실·완성의 순환 질서를 뜻한다고 작가는 설명해 주었다. 이를 한

옥에 적용하면 터를 잡는 지혜, 대청과 마루를 통한 관계 형성, 안채와 부엌에서의 삶, 사당과 제례를 통한 기억과 윤리의 지속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작품들은 전국 한옥과 종택, 서원, 제례 현장을 오랜 기간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한옥의 형태뿐 아니라 종가 문화, 제례, 일상의 흔적까지 함께 드러내는 전시로 볼 수 있었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은 전시에 관람에 앞서 협회 발전에 관해 의견교환을 했으며, 점심 식사는 차영민 부회장의 협찬으로 진행되었다.



2030 한복생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심포지엄

협회 최소연 이사장과 부회장, 이사 등 참석

협회 임원은 지난 6월 19일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열린 ‘2030 한복생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를 위한 제4차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한복생활유네스코 등재추진단이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는 협회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정자, 박광옥 부회장, 최진숙 서울제1지부장, 최지원 인천지부장과 강희옥 감사, 이금숙, 조영아, 정순영, 문차남, 류소영, 장효순, 신연서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복생활이란 한국의 자연, 환경, 역사의 상호작용 속에서 한민족의 삶과 공동체와 함께해 온 전통 지식과 기술이며 문화적 표현이다. ‘한복생활’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미적 가치를 대

표하는 생활 전통으로 사회적 의례와 관습이며 공동체의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지속해서 재창조되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우리 협회는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한복을 널리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우리 협회는 모든 행사에서 한복을 생활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규방다례나 생활다례, 가루차행다례, 선비다례 등에도 한복을 입고 시연을 하고 있다.

최소연 이사장은 “한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많은 회원이 관심을 두시길 바랐다.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부 사랑방 (가나다 순)

강원지부 · 경남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충북지부

강 원 지 부

육우『다경』의 제다법을 따라 떡차를 만들다 문헌 속 떡차를 재현해 보다



지부장 김미숙

지난 2026년 6월 6일, (사)한국차문화협회 강원지부 교육생들은 조금 특별한 차 만들기에 도전했다. 매년 제다장을 찾아가 직접 찻잎을 덥고 녹차를 만드는 것이 익숙한 교육 과정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교육생 수가 많지 않았고 제다장의 일정과도 맞지 않아, 새로운 방식의 실습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문헌 속의 떡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김미숙 지부장의 제안으로 교육생 3명은 육우(陸羽)의『다경(茶經)』에 기록된 고대의 제다법을 살펴보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떡차 만들기에 도전하였다.

문헌 속에서 만난 떡차 만들기

영상으로 들었던 육우의『다경』강의 중 「삼지조(三之造)」에는 당대의 차 만드는 과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찻잎을 채취(採)한 뒤 찌서(蒸), 절구에 찜고(搗), 모양을 만들고(拍), 굽고(焙), 꿰고(穿), 저장하는(封) 과정을 거쳐 차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녹차의 제다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특히 찻잎을 증기로 익힌 뒤 절구에 찜고, 일정한 형태로 성형하여 건조하고 저장하는 과정은 오늘날의 떡차·병차 계열 제다법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

우리는 책 속의 글을 읽는 되 그치지 않고, 그 과정을 하나씩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다.





찌고, 찢고, 빚고, 다시 말린다.

먼저 준비한 찻잎을 시루에 찌서 찻잎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이어 절구에 넣어 충분히 찢었다. 찻잎을 찢고 찢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찻잎의 상태에 따라 질감이 달랐고, 어느 정도까지 찢어야 하는지 손끝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육우는 『다경』에서 찻잎의 모양과 상태에 따라 완성된 차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특히 “증압(蒸壓)하면 평정(平正)하고, 느슨하게 하면 울통불통한 모양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남겼다. 즉 찢고 누르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압력과 성형의 정도가 완성된 차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 작업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손으로 차를 모아 모양을 만들고 눌러 보면서 얼마나 단단하게 눌러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압력이 적당한지를 몸으로 익혀야 했다.

문헌의 한 문장이 손끝에서 살아나다

『다경』에 육우는 찻잎의 형태를 대나무 껍질과 같은 형태의 차는 가지와 줄기가 단단하여 찢고 찢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모양이 고르지 않게 된다고 기록하였다.

문헌으로 읽을 때는 한 문장에 불과했지만, 실제 찻잎을 찢고 찢어 보니 그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차는 단순히 찻잎을 말리는 작업이 아니었다. 찻잎의 상태를 살피고, 손의 힘을 조절하고, 찢는 정도를 살피고, 누르는 압력을 조절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제다였다. 책 속에 머물러 있던 오래된 기록이 손끝의 감각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모양을 만들고, 다시 기다리는 시간

성형한 차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다. 먼저 1차 건조를 하고, 차의 상태를 살핀 뒤 다시 껴미에 껴어 충분히 건조하였다. 이번 실습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차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기다림’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다. 모양을 만든 뒤에도 차의 속까지 충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건조 상태를 살피며 마지막까지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글_손이옥 사범교육생

경 남 지 부

73기 제다실습, 솔 덥음 차 만들기

마산 관해사다원에서 9증 9포 초청 녹차 제다



지부장 황미경

신록에서 녹음으로 가는 길목, 한국차문화협회 경남지부의 제다실습, 입하를 지난 찻잎은 옷자랐지만 보드랍고 초청 녹차 제다 명인 자운 스님의 제다 내공은 싱그러움이 살아있는 녹차로 변신하게 했다.

한국차문화협회 회원님들! 차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차인들! 값비싼 찻그릇에도 비단 치맛자락에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고가의 중국차, 화려한 홍차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도리에 물러서지 않을 차심을 가진 단단한 차인이러니! 커피의 거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 없이 나아가는 차인들!

그대들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대들은 참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초청제다는 철 술에서 9증 9포 제다를 말한다. 철 술 덥은 증기로 찢는 효과를 누리고 식힘과 유념(비비기)과 건조까지 반복하는 9회의 시간을 가진다. 차 따기와 만들기는 총 10시간, 솔 덥음 10회, 3.2kg 찻잎이 700g 귀한 차로 탄생한다.

초청녹차(炒靑綠茶)는 찻잎을 술에 덥어(炒, 살청) 산화를 막는 제다법을 사용하며, 이를 9번 덥고 9번 말리는 과정을 구증구포(九蒸九曝)를 현대식 구초구포 방식으로 만든 최고급 수제 녹차를 뜻한다.

1. 핵심 제다 과정 (솔 덥음) 살청(殺靑):

300도 이상의 뜨거운 쇠술에서 찻잎의 산화효소를 빠르게 멈춰 녹색을 보존합니다.



.구초구포(九炒九曝): 달궜진 솥에서 뒤고(炒), 식히고, 비비고(유념), 말리는(曝) 과정을 9번 반복합니다.

.특징: 여러 번의 뒤음으로 수분이 충분히 제거되어 차의 맛이 순하고, 구수한 향이 강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더해집니다.

2. 초청녹차 구증구포 솥 뒤음의 향과 맛:

높은 온도의 솥에서 뒤어내어 비린내가 없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 외형: 9번의 수작업을 통해 잎이 잘 말려져 있

며, 뒤는 과정에서 잎이 구불구불하거나 곧은 등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 제다의 정성: 찻잎을 9번 뒤고 9번 말리는 것은 찻잎을 다루는 장인의 찰나의 감각(소리, 냄새, 손끝의 느낌)이 매우 중요한 고난도 작업입니다.

3. 일반 뒤음차와의 차이:

일반적인 솥 뒤음차는 1~3번 뒤고 비비기를 반복하여 차 본연의 향을 살리는 반면, 구증구포(구초구포)는 9번의 과정을 통해 더욱 묵직하고 원숙한 맛을 냅니다.

글_조경숙 전문사범



채정복 원장은 '차를 단순한 기호 음료나 예절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삶을 돌보고 내면의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수행문화이자 치유의 수단으로 격상한 차공연 등 활동으로 국내외 차문화 선양에 이바지하신 바가 크다.'라고 했다.

글_주영희 전문사범

차(茶)로 만나는 마음의 수행, 삶의 지혜

원화(元和) 채정복 원장 초청 특별강연

경남지부 김해지회 회원들이 「한국 차문화사에 끼친 효당 최범술 종장의 공적」을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 참석했다. 한국 전통차문화와 선차(禪茶)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원화 채정복 원장은 40여 년간 효당 최범술 종장의 차 정신과 반야로차도의 맥을 이어 오며 한국 차문화의 수행성과 치유적 가치를 전해 온 인물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효당 스님 문하로부터 전해 내려온 반야로차도의 철학과 수행 정신, 그리고 차를

통한 삶의 성찰과 인간 회복의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냈다.



반가운 얼굴들과 도란도란

차음식경연대회 수상자들과 함께

오랜만에 경남 곳곳에 계신 사범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차음식경연대회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두 사범이 정성껏 준비한 김밥과 과일, 다과, 치자 약밥을 준비했다.

창녕지회장님은 사범회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찾자리와 모임 장소, 색다른 다식까지 제공해주셨다. 덕분에 모두가 여유롭게 차를 나누며 휴식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

지부장님의 "5분 차 명상"으로 심신을 다독거리고 오랜만에 만나 도란도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함

께해 주신 모든 사범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인연과 아름다운 차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글_김돌자 전문사범



대구경북제1지부

차의날 지정, 명예이사장장님께 헌다례를 올리다

차음식경연대회에서 다수의 상 받다

올해는 특별한 날인 것 같다. 차의날 지정 법적 통과를 맞이하여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 차의날 전국차인큰잔치 차음식경연대회 개최식에서 헌다례를 올리게 되어 더욱 뜻깊었다.

가슴이 뭉클해 왔다.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했던 많은 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인자하신 모습으로 빙그레 웃으시며 앉아계시는 듯하다. 제가 명예이사장님께 차를 올리게 되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는 물론 대구경북제1지부도 응원해 주셨다.

그 덕분에 오늘도 많은 회원이 함께했다. 우리 회원들이 차음식과 찻자리 등을 준비하여 정성껏 손님을 맞았다. 우리 찻자리에 손님이 줄을 섰다. 지부장인 나는 어깨가 저절로 올라간다.



시원한 장소와 분위기도 너무도 좋은 것 같다. 차음식경연대회에는 대구경북제1지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나머지 입상 3명을 배출했다. 또한 찻자리 꽃꽂이 우수상 1명도 함께 받아 상복이 많았다. 조금만 더 노력했다라면 더 높은 상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을 남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귀갓길은 언제나 분주하고 즐겁다. 차인 여러분 행복은 따로 없습니다. 차와 함께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차인 회원 모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부장 박경숙

차의 열정, 차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

차의날 기념 및 전국 차인큰잔치 참석

지난 6월 27일 인천 상상플랫폼 웨이브 홀에서 열린 제46회 차인의 날 기념 제37회 전국 차인큰잔치 차음식(다화)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국에서 모인 차인들의 열정과 우리 차문화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 우리 차를 알리려는 마음을 담아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각 지역 부스의 찻자리와 멋스럽고 아름다운 다례시연, 차 만들기, 다례체험 같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스체험까지 정성이 한가득했습니다.

백여 점의 차가 들어간 다양한 음식들은 그 정성에 음식이 아니라,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화가 함께 경연을 펼쳐 조화로움과 멋스러움이 대회를 더 빛나게 했습니다. 눈과 마음이 호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품마다 준비하신 차인들의 열정과 고민의 시간을 고스란히 느끼며 “와~~~ 대단하다.”라는 감탄의 말 밖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스에서 만난 일반시민들은 “이게 뭐예요?”라는 질문과 함께 많은 질문으로 차에 대해 이렇게 접하게 되고 알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언제 또 하나며 많은 관심과 인사를 전해주셔서 보람도 있었습니다.

차는 단순히 한잔의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예절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나눔의 정신까지 함께 하는 소중한 전통문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차문화를 지키고 계승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착화하고 계승하는데 애써주신 고 이귀례 이사장님과 최소연 이사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을 함께하고 계신 지부장님들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과 저 역시 차인으로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구경북제1지부는 지부장님 선배님들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이번 행사도 한마음으로 나누고 배려하며 함께 잘 마무리하고 수상하신 분들의 축하와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글 박선민 사범회 총무



서울 제1지부

차생활의 찻상머리 교육을 마치고

차는 사람을 배우는 교육이다

6월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차생활의 찻상머리 교육을 함께하였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차를 교육하기보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늘 바쁘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지나가는 날이 많다. 그래서 강의는 차 이야기보다 먼저 국악 음악과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시간으로 시작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찻잔의 따뜻한 촉감과 향을 맡으며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질문을 드렸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완벽한 부모보다 여유 있는 부모, 아이의 말을 끝

까지 들어주는 부모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은 길지 않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는 기다림이 있고, 배려가 있고, 감사가 있다.

우리 조상들이 차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예의와 마음가짐을 배우는 생활문화로 여겼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차나무와 6대 다류를 알아보고, 생활다례 시연과 차를 직접 우려마시는 체험도 함께하였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찻상머리 교육은 차를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는 교육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기다림과 존중, 감사의 마음이 차향처럼 은은하게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

글_진인순 전문사범



지부장 최진숙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과정을 마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

2026년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게 시작하였고 쉽게 지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차 한 잔을 단정하게 우려내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한국차문화협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6개월의 교육을 지나오면서 차는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며, 나를 다스리는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배우는 시간만큼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조용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서 제게는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다구의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았고, 손끝은 자꾸 어긋났으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시간마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물이 알맞게 식기를 기다리고 찻잎이 우려나는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동안 늘 조금씩

제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구를 다루는 순서 하나하나, 손님 잔에 차를 따르는 순서 하나하나에도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다는 가르침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바르게 앉는 자세와 고요한 호흡이 곧 예절의 시작이라는 말씀 앞에서, 인성과 예절이 왜 차문화와 한 몸일 수밖에 없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차 수업은 다례의 기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차의 역사와 정신, 계절과 자리에 맞는 예를 배우며, 선인들이 차 한 잔에 담아 온 마음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차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야 그 맛도 고요해진다는 사실을, 실습을 거듭할수록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배움은 지부 교육장을 나선 뒤에도 제 일상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준사범이라는 이름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 겨우 첫 잔을 우려낸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배운 바를 먼저 제 삶에서 실천하고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의 예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글_강자화 준사범



26년 상반기 서울제1지부 종강식

부회장님 이하 모든 회원이 한몸 한마음이 되다

지난 7월 11일 서울제1지부 종강식을 가졌다. 한 해의 절반을 함께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서울제1지부의 따뜻한 종강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된 종강식은 최진숙 지부장님의 따뜻한 개회사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상반기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함께 성장한 시간들을 나누고, 상장 수여식과 공지사향 전달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정성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김승빈 대학원 선생님의 다화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꽃을

화병에 꽃을 때 알아두어야 할 기본 상식부터 꽃의 줄기를 부드럽게 다루고, 각도와 공간감을 살려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감성과 개성을 담아 다화를 완성하였고, 완성된 작품을 품에 안고 돌아가는 모습에서는 작은 행복과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날은 김가영 부회장님, 차영민 부회장님, 그리고 귀한 손님으로 강정자 부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으며, 이사님들과 사범님, 교육생 모두가 어우러져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종강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글 김미경 전문사범



서울제2지부

청주여자교도소서 전통성년례 개최

전통성년례로 새 삶을 다짐하다



지부장 박광옥

제54회 성년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18일 한국차문화협회 서울제2지부는 박광옥 지부장(교정위원)과 회원들이 함께 청주여자교도소를 찾아 성년을 맞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전통성년례(계례) 행사를 진행했다.

수십 년 동안 교정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박광옥 지부장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지속적인 다례교육을 실시하며 수감자들의 인성 함양과 정서 안정에 힘써 왔다. 특히 매년 성년의 날에는 전통성년례를 통해 성인이 갖추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성의 전통 성년례인 계례는 단가례 형식으로 진행됐다. 성인으로서의 복장을 갖추는 시가례·재가

례·삼가례, 차를 마시는 예법을 배우는 초례, 이름 외에 귀하게 불릴 자(字)를 내려주는 자계자례, 그리고 성년선서와 성년선언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번 성년례에 참여한 19세 수감자들은 바른 품성과 올바른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될 것을 선서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어진 성년축사를 끝으로 의식은 마무리됐다.

행사 내내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수감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성년례를 마련해 준 봉사자들과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출소 후에는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성년례를 마친 후에는 차와 다과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준비한 음식을 함께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수감자들은 직접 작성한 소감문을 낭독하며 부모님께 감사와 반성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다도예절을 지도해 준 한국차문화협회 지부장과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실한 수용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겠다는 의



지를 밝혔다.
박광옥 지부장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다짐을 잊지 말고 사회에 복귀한 후에는 성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건강한 사회

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라고 격려했다. 이번 전통성년례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 우리 전통문화를 통해 성인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감자들이 자신을 성찰하며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글_허유진 전문사범

배움의 기쁨과 함께한 종강의 시간

종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무더운 여름, 교육생들과 전문사범들이 함께한 교육이 뜻깊은 종강을 맞이하였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다례의 형식을 익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전통 차문화의 정신과 예를 배우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교육생들의 규방다례 연습은 한 동작, 한 마음가짐까지 서로 맞춰가며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절차도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점차 자연스러워지는 모습을 보며 심의 보려고 연습하던 생각이 났다.

부회장과 선배 사범들의 가르침, 의욕은 앞서나 맘대로 구현이 안 되는 몸 힘을 빼라는 가르침에도 로봇처럼 딱딱거렸던 추억을 되새기며...

서로를 배려하며 배우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나누

며 성장하는 모습에서 차문화가 지닌 ‘화합과 존중’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신입 교육생이 준비한 시원한 콩국수를 함께 나누며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한 그릇의 식사 속에는 함께 흘린 땀과 정성, 그리고 선 후배와의 따뜻한 교류로 웃음꽃이 피어난 식사 시간은 교육의 마무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이번 종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앞으로 있을 심의에서도 그동안의 노력과 정성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배움에는 끝이 없듯이 차의 길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길 희망한다.

글_허유진 전문사범

아 산 지 부

아산지부 유치원 다례교육 4세부터 7세 유치원생 기초 다례수업



지부장 김태임

아산지부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다례교육을 실시했다. 유치원생 3개 반 4~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다례교육에서는 찻잔 잡는 법과 기본예절 교육을 했다. 고사리손으로 두 손 모와 차 마시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엉덩이를 들고 하는 절도 이쁘기만 하다.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 하는 아기 천사들~! 각 유치원 어린이집마다 다례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인도네시아 교육 공무원 대상 다례교육

한국을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교육자들 다례체험

아산지부 김태임 지부장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방문한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다례체험 시간을 가졌다.

능소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더운 여름날. 귀한 손님

들의 방문으로 찻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다.

인도네시아 교육 공무원 10여 명은 짧은 시간 동안 다례체험을 위해 외암리에 모였다. 교육자들이라

그런지 수업 태도가 매우 집중적이었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이들 공무원은 한국의 차문화에 관심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한국 차문화에 관심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의 차문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차문화 행다례 촬영하다

우리의 차문화 홍보, 문화원에서 진행

문화원에서 다례 홍보용 촬영 협조가 와서 사범들과 함께 행다례 시연을 했다.

문화원 다도반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촬영에는 많은 회원이 관심을 두었다. 촬영 내내 행다례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한지 칭찬이 자자했다.

이번 행다례 영상을 통해 차문화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보급되고, 실생활에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외암마을 야행 행사

다례체험 꾸준한 인기 얻다

아산지부는 외암마을 야행 행사에 올해도 참석했다. 해가 갈수록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는 점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야행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

며, 특히 다례체험은 꾸준히 인기 있는 코스이다. 매년 참가하다 보니 젊은 층의 참여가 눈에 띄어, 우리의 차문화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청 선생님들 다례체험

아산시 교육청 소속의 선생님들 대상

아산시 교육청 소속의 선생님들께서 다례체험을 신청하였다. 아산지부 김태임 지부장은 차 개론과 차 문화사를 간략하게 강의했고, 현재 우리나라에



다례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학생들을 위한 다례교육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우리의 차문화와 다례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의를 마무리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다담회를 가져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무더운 여름날 아산지부 종강식 가지다

새 학기를 기대하며, 종강식 가져

아산지부는 김태임 지부장과 임원 등 집행부가 모여 단출한 종강식을 했다.

무더위가 극에 달하고, 여름 휴가로 인해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난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한 회원들이 함께 모여 콩국수, 과일, 떡 등으

로 화기애애한 종강식을 했다.

종강식을 마친 회원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다담 시간으로 우애를 다졌다.



인천지부

종강식을 마치며

한 한기 열정적이었던 인천지부 회원께 감사



지부장 최지원

평소 차를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했던 차문화와 다례. 약간의 호기심을 갖고 타의 반 자의 반 인천지부 교실을 살포시 열고 입문했던 3월. 벌써 종강식을 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떠오른다.

다화와 다식 경연대회에 서슴없이 출품작을 내놓을 수 있었던 모든 영광과 추억은 수업 시간 내내

열정을 다해 가르쳐주신 지부장님을 비롯하여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수업을 도와주신 인천지부 회원이 없었다면 어려웠다.

함께 공부한 1학기 회원분들. 공부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우정을 나눠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학기를 기대한다. 글:김혜숙 전문사범



충 북 지 부

우리 지부 5월 사범회

스승의 날을 자축하다

우리 지부는 스승의 날을 맞아 차예절지도사범으로서의 자격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차공부를 하며 느꼈던 어려운 점, 사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되새기고, 늘 후원해주시는 지부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스승의 날을 모두 함께 자축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지부장 박숙희

우리 지부 7월 정기사범회 진행하다

차음식경연대회 수상자들과 만남 가져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우리 지부 7월 정기사범회가 효동원에서 진행되었다. 신승연 사범이 준비해 온 실버팁 등의 차를 마시며 차인큰잔치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선경 사범, 가작상을 수상한 김동례 사범, 입선한 이정애, 정미영, 김미정, 김효겸, 전

인숙, 허윤숙, 신승연, 서지연 사범의 수상을 축하하며 서로 우의를 나누었다. 하계연수에 대한 협의를 서로 나누며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새겨 보았다.

정기 임원회 진행하다

전근화 사범댁에서 진행

우리 지부는 지난 7월 23일 정기 임원회를 전근화 사범댁에서 가졌다. 새로 이사한 새 아파트에 초대받아 모두 축하의 마음을 듬뿍 전하며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축원하였다. 맛있는 저녁 식사 후 2학기 계획을 중심으로 지부 발전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지부 6월 사범회

바느질 솜씨 즐기다

우리 지부는 6월 15일 김선경 사범의 지도로 예쁜 손가방에 수를 놓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푸짐한 다식을 준비해 주신 담빛 사범님, 지부장님의 맛있는 차는 매월 만나는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특히 김동례 사범은 속리산 문장대를 100회 등반하여 자축의 의미로 기념 수건을 마련하여 선물했다.





평생 1번 오로기도 쉽지 않은데 속리산 정상을 100 번을 올라 모두 깜짝 놀랐다.
중요한 차인큰잔치 때 찾자리 준비와 차음식경연 대회를 협의하며 모처럼의 나들이에 대한 기대로 다음 만날 날을 기약했다.



1학기 봉사한 임원들 위한 감사의 차회 마련

홍차 전문점 씨스네티룸에서 가졌다

지난 7월 30일 한 학기 동안 지부를 위해 기꺼이 봉사해 주신 임원진을 위한 감사의 차회를 홍차 전문점 씨스네티룸에서 가졌다.
사범회 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일찍 나와 청소하고 효동원 정리는 물론 다과 준비를 해 준 노고에 감사하며 따뜻한 차를 나누었다.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 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9명)



2급-제26-1191호
임은



2급-제26-1192호
이숙



2급-제26-1193호
박주



2급-제26-1194호
박희



2급-제26-1195호
박아



2급-제26-1196호
박정

3급 자격취득자(16명)



2급-제26-1197호
박숙



2급-제26-1198호
신자



2급-제26-1199호
이현



3급-제26-1133호
강화



3급-제26-1134호
원진



3급-제26-1135호
김영



3급-제26-1136호
박란



3급-제26-1137호
범진



3급-제26-1138호
이정



3급-제26-1139호
임주



3급-제26-1140호
진순



3급-제26-1141호
피림



3급-제26-1142호
김진



3급-제26-1143호
박희



3급-제26-1144호
정환



3급-제26-1145호
신자



3급-제26-1146호
전영



3급-제26-1147호
최○숙



3급-제26-1148호
허○정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9명)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1	경남	임○늘	2급-제26-1191호
2	대구경북1	이○숙	2급-제26-1192호
3	서울1	박○주	2급-제26-1193호
4	서울2	박○희	2급-제26-1194호
5	서울2	박○아	2급-제26-1195호
6	서울2	박○정	2급-제26-1196호
7	인천	박○숙	2급-제26-1197호
8	인천	신○자	2급-제26-1198호
9	전북	이○현	2급-제26-1199호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취득자(16명)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1	서울제1지부	강○화	3급-제26-1133호	9	서울제1지부	피○림	3급-제26-1141호
2	서울제1지부	권○진	3급-제26-1134호	10	전북지부	김○진	3급-제26-1142호
3	서울제1지부	김○영	3급-제26-1135호	11	전북지부	박○희	3급-제26-1143호
4	서울제1지부	박○란	3급-제26-1136호	12	전북지부	정○환	3급-제26-1144호
5	서울제1지부	범○진	3급-제26-1137호	13	강원지부	신○자	3급-제26-1145호
6	서울제1지부	이○정	3급-제26-1138호	14	강원지부	전○영	3급-제26-1146호
7	서울제1지부	임○주	3급-제26-1139호	15	강원지부	최○숙	3급-제26-1147호
8	서울제1지부	진○순	3급-제26-1140호	16	강원지부	허○정	3급-제26-1148호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8명)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1	경남	임○늘	인성교육2급-제26-170호
2	서울1	박○주	인성교육2급-제26-171호
3	서울2	박○희	인성교육2급-제26-172호
4	서울2	박○아	인성교육2급-제26-173호
5	서울2	박○정	인성교육2급-제26-174호
6	인천	박○숙	인성교육2급-제26-175호
7	인천	신○자	인성교육2급-제26-176호
8	전북	이○현	인성교육2급-제26-177호

• 홍차티마스터 •

홍차티마스터 자격취득자(7명)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1	서울1	김○빈	3급-제26-119호
2	서울1	진○순	3급-제26-120호
3	인천	강○옥	3급-제26-121호
4	인천	이○숙	3급-제26-122호
5	인천	조○아	3급-제26-123호
6	인천	최○원	3급-제26-124호
7	충북	신○연	3급-제26-125호

초보자를 위한 Q&A

☞ 차의 효능

- 암 발생 억제 효과

녹차를 하루 10잔 이상을 마시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64%나 감소하고, 대장암은 52%, 간암은 45%, 위암은 20%의 감소 된다는 결과가 있다. 일본 사이다마현 암연구센터 나카지 박사팀은 주민 8,5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연구한 결과라며, 녹차는 암 발생 억제 효과가 크다고 했다.

- 치매 예방 효과

녹차를 자주 마시면 뇌 속에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녹차를 많이 마시는 일본 시즈오카현 주민들의 경우 암 발생뿐만 아니라 치매 발생도 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

녹차의 떫은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은 인체에 이로운 HDL-콜레스테롤은 상승시키고, 몸에 해로운 LDL-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다. 녹차를 마신 사람에게선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질이 카테킨 성분에 의해 대변으로 배설되어 혈청 지질을

좋은 상태로 만들며 간장의 지질 축적도 방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녹차의 피부미용 효과

중국에서 녹차 생산의 중심지인 절강성 항주 지방은 미인이 많기로 유명하여 예로부터 중국 남자들의 3가지 소원 중 하나가 항주 미인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한다. 녹차에는 카테킨과 비타민 A.C.E 등 피부노화의 원인인 유해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억제하여 기미나 주근깨의 형성을 막아준다.

- 노화 억제 효과

세계적인 장수 국가 일본과 4대 장수촌 지역 중 코카서스나 중국 신장의 위구르 자치지역은 차 소비가 매우 많은 지역이다. 차는 노화 억제 효과와 알레르기 억제, 당뇨병 효과, 식중독 예방 효과, 살균 효과, 알코올 분해 효과, 기억력 및 판단력 증진, 중금속 제거 효과, 충치 예방 등 다양한 억제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세계 10대 장수식품 중 하나이다.

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차문화지는 무가지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수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koreatea1991@naver.com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년 6월~ 2026년 8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협회 발전 찬조금 이사장 · 최소연 (6,700,000원) 기타 · 정건영 (300,000원)	2026년 특별회비(임원) 지부장 · 조정미 (1,000,000원) 지부장 · 김미숙 (500,000원)
특별회비(지회장) (200,000원) 전북지부 · 정대교, 이영순, 이영숙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경남지부 · 이숙련, 조경자, 김경희, 이미숙, 안선희, 고은희, 임현섭, 이서영, 이영애, 황정자, 이용숙, 정연상, 김둘자, 정재윤, 주영희, 박영미, 박은화 대구경북제1지부 · 이진우, 강숙현, 조은경, 임순희, 박양자, 이은숙, 배동순, 도윤옥, 김천수, 허윤경, 이명자, 천미경, 최수연, 월제스님, 이남정, 장명희, 구명희, 이다혜, 정명순, 권영희, 채경숙, 김명수, 이국주, 이미정, 조현숙, 김영순, 위숙희, 임문은, 배상호, 박선민, 김영희, 성우용, 정 호 수원지부(동수원) · 김지원 충북지부 · 권정희, 이주현, 김영희 전북지부 · 양필모, 서윤경, 이난희, 전순경, 박은경, 김 민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6년 6월~ 2026년 8월 우수료 납부자 명단

6월 통장 입금
충북 · 권정희, 이주현, 김영희 / 동수원 · 김지원

7월 통장 입금
대구경북제1 · 채경숙, 정명순, 허윤경, 이은숙, 임순희, 이명자, 구명희, 이다혜, 위숙희,
도윤옥, 장명희, 김천수, 김명수, 월제스님, 이남정, 조현숙, 임문은, 박양자, 박선민, 배동
순, 이미정, 김영순, 배상호, 성우용, 최수연, 권영희, 이진우, 이국주, 천미경, 강숙현, 조
은경, 김영희

8월 통장 입금
경남 · 강정자, 조희옥, 황정자, 김경희, 이숙련, 황미경, 하 식, 이서영, 주영희, 정연상,
조경자, 이미숙, 김둘자, 이영애, 정재윤, 안선희, 박영미, 박은화, 임현섭, 고은희, 이용숙
/ 전북 · 양필모, 서윤경, 이난희, 전순경, 박은경, 김 민

• 한국차문화협회 하반기 일정 •

정기이사회 개최

2026년 9월 8일(화)

인설차문화대전 차예절경연대회

2026년 10월 31일(토)
인천 가천대메디컬 캠퍼스



인설차문화전

무형유산총연합회 대축제

2026년 10월 24일(토)
(가루차행다례, 선비다례 시연)

전국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

2026년 11월 7일(토)
(전북지부 개최)

임원 보수교육

2026년 11월 13일(금)

인천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

2026년 11월 14일(토)



전국 청소년차경연대회

전통수제차의 명가 햇차원이 만듭니다.



수상내역

2001 경상남도 우수벤처 농업상 수상

2003 "햇차원"으로 사명변경

2005 ISO 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07 유기농 인증획득

벤처기업 인증서 획득

2008 진주 바이오21센터 내 연구실 개소



다매전수자 이경숙님

200년을 이어온 제다기술로 장인의 손에서
세상에서 둘도없는 명품차를 만듭니다.

햇차원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202 전화: 055-882-0000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카푸치노 같은 거품이 나는 가루차!

누가 분쇄기를 쓰지 않고
맷돌로 갈까요?



한국제다는 전남 영암, 장성, 해남에 10여만평의 다원을 가지고 우리 차를 직접 만듭니다.

57년 차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차를 알고 차를 만듭니다.

우리 차의 정신- 한국제다가루차

한국제다

제품 상담: 062)222-2902